

I. 시작하는 말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인간입니다. 그는 파도와 바람 속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이 파도와 바람이라는 현실로 향하게 될 때 그는 물속으로 가라앉고 맙니다. 주님께서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만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시고 계십니다.

II. 중심 말씀

1.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홀로 기도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이목과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만 집중하며 우리 마음을 토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해볼 수 있는 일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께 마음을 토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나눔 질문) _____

2.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던져야 합니다.

신앙은 타인들에게 비춰지기에는 무모해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나의 생각의 한계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세계로 뛰어 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논리와 생각, 방법을 뛰어넘어 계십니다. 우리의 의도 너머에 계신 주님께로 뛰어 들어 주님의 세계를 발견하는, 그래서 우리의 안전지대의 현실을 넘으시길 바랍니다.

나눔 질문) _____

3.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는 바람을 보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았다가 바람과 파도에 시선을 뺏기게 된 것입니다. 그 파도와 바람은 이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까지만 해도 파도와 바람은 문제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주님으로 고정되어 있던 시선을 잃으니 진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나눔 질문) _____

III. 정리하는 말

성도의 삶에는 예수님만 보이는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럴 때 내가 보기에 문제라 생각되는 모든 것들은 문제가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1. 환영의 시간(Welcome) : **행복한 기억 나누기**

◆ 임재찬양

- 1)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 2)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 마음문 열기 : 한 주간 감사 나누기, 게임

2. 경배의 시간(Worship) : **복음성가나 찬송가로 경배하기**

◆ 찬송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찬202)

- 1)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 2)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댄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 3)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 4) 주 예수 날 사랑 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 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 5) 주 예수 날 사랑 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후렴)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 쏟아놓는 기도 : 나의 죄, 나의 아픔,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댄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 3)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 말씀 나눔의 시간(Word) :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 말씀 나눔 및 결단의 기도

◆ 기도제목 나눔 및 합심 기도

4. 사역의 시간(Works) : **역사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기**

- ◆ 교회를 위한 기도 -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 한반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위정자를 위하여
-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